

< 긍휼하심과 은혜 >

히브리서 4:14-16 / 새찬송가 523 (통일 262) 어둔 죄악 길에서

1.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의 크기는 과연 어떨까요

하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분노하시는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(시145:8). 만약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보다 더 크다면 죄인 된 우리는 벌써 다 진멸하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(애3:22).

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항상 우리 죄악의 크기보다 더 크십니다(시65:1-3). 죄악은 항상 나보다 더 커서 나를 이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악보다 크시기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.

2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크기를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출발이 됩니다

긍휼과 은혜가 함께 할 때 사랑이 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 알아보고 그 크기를 체험해야 합니다(엡3:16-19).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 즉 그 '크기'는 막연하게라도 알 수 없고 신학적 혹은 성경적 지식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오직 체험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.

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크기를 체험한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들 때조차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걱정과 근심을 압도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. 또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더 크다는 것을, 원망과 불평할 일보다 감사하고 찬미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.

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크기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. 만약 은혜를 잊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만 알았기 때문입니다(시103:1-5).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체험한 사람은 매 순간 마다 용서받고 보호함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일상의 기적이 일상의 평범함 보다 더 많으며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무응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

니다.

또 매사에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주
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아도 아주 망하거나 죽음에 넘겨지지 않
습니다(시62:1,2),(시118:18)..

더불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뿐 아니라 자신이 쌓아놓은
그 업적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. 집을 세우는 것도, 세워진 집을 지
키는 것도 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(시127:1).

3.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아야 합니다

긍휼과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계산과 이해타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.
예수님은 열 두 제자에게 권능을 긍휼과 은혜로 거저 주셨고, 그 권능을 긍휼과
은혜로 거저 행사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(마10:1), (마10:7,8).

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축복을 그 분의 긍휼과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. 그러
므로 남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거저 주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
니다.

<적용&실천>

나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까? 만
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었는지 돌아보며 하나
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.